



동국대 언어이해 특강

서울대 로스쿨 13기 송형근

본인의 상황은?

- 본인의 상황에서 LEET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시간 고려
→ 일주일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나?
- 현재 LEET 준비 상태 점검
→ LEET 관련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나? (기호 논리학, 다양한 배경 지식 등)

	학부생	직장인	LEET 올인
초시	?	?	?
재시	?	?	?

기본기 다지기

➤ 언어이해

- 분야별 최소한의 배경지식 쌓기(성리학 이기론이 3개년도 기출로 나옴, 칸트는 5개년)
 - LEET 지문 내용을 더 탐구하기(칸트, 헤겔, 파시즘, 공리주의 등)
- 지문 읽는 표기법 익히기
 - 중요한 단어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등
 - 밑줄 요령 등 일관된 표기법 익히기
 -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습

기본기 다지기

언어이해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기

→ LEET 대원칙: 모든 근거는 지문 안에 있음

→ 선지 판단의 근거 문장이 무엇인지 지문에 하이라이트

→ 틀리게 내는 선지 유형 파악 (정보역전, 이질개념결합, 인과/선후/포함 관계 역전, 무관) = 95%

그래야 감, 느낌으로 풀지 않음!

관미하여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그 화려한 입지는 잊히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반면에 오히려 **조선에서 비술살이하는 자는 그 온 지(門地)가 편익 못하고 땅은 바 척부가 아주 낮으며 명성도 한 지역을 넘어 멀리 퍼지지 않는다.** 특 높은 식전과 뛰어난 재주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모두 **흔히 사라지지 드러나지 않는다.** 이리하여 더욱 그 같은 인재를 자랑하여 기복하고 한을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같은 사실을 나는 흔히 **선지**라고 생각한다.

본문이 월성(月城)인 사과(史果) 비술(非酒)을 신하(臣下)의 권(權)이래로 이서(吏節)로서 가문을 일으킨 인물(人物)을 널리 고찰하여 **관감록(觀感錄)** 한 편을 지었다. 그리고는 **구천(九泉) 통단랑(通檀郎)** 이 경민(景敏)이 지은 **이치명록(吏職名錄)**, 왕(王) 감은시(感恩詩), **강소(姜少) 장소(姜氏), * 향공소(鄕貢疏)**, 를 그 앞에 향하여, **원조귀감(原朝歸感)**이라 하였다. 그 글들은 근거가 확실하고 상소의 언사(言辭) 또한 기허 추려 볼 만한 것이 많으며 **일체 실험을 권하고 약함을 깨우치는 기록의 언어이치 있어 거의 읽을 만하다.** 그러므로 이 책의 질린 내용은 마땅히 왕(王)인물(人物)이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건대 **신라부** 또한 기허 비어하는 안 될 것이다. 이 또한 아류당겨 아라한다. 다만 **이래** 오후록년 사이에 **행적이 많이 흔적지 버려 진기한 꽃이나 특이한 나무 같은 뛰어난 인재를 많이 채록할 수 없었으니, 이 또한 문지(文誌) 부분에 그러된 것이다.**

내가 듣기에 **옛적에는 지(地)를 통용할 때 (才) 휘(德)으로** 써 그 기준을 삼았으며 문치(文治)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하·은·주·3대 이래 모두 이와 같이 하였으니 대개 부리와 여상이 그러한 예이다. 소를 기르던 백리해가 통용되고 노예였던 위성이 발탁된 것은 그것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 사례이다. 하물며 주현에서 비술살이하던 사람은 위와 같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서로 차이가 나는 정도만이다. **관(官)을 주현에서 비술살이하던 사람(人)을 조정에 등용하는 것은 단지 (才)의 차이로 승진시키는 정도** 이다. 생각건대 **어려운 일이 하나였다.** 그러나 후세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오히려 **오직 오직만** 사람을 등용하였다. 그러므로 뛰어난 사람이 딱히 비술할 수가 없으며, 주현에서 비술살이하던 사람은 인자방앗간에서 맷돌을 돌리는 당나귀와 같이 **손실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선비 또한 이러한 처지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고 **잠내 닳고 천한 지경에 빠져 버린 자** 마치 있으나, 오히려 **이책 애석하지 않으라.**

무릇 천단하여 명성을 떨치는 것이 이미 적와 같고, 막히어 세상에 파궤로 버린 것이 또한 이와 같으니, **문치(文治)으로는 죽은 인재를 쓸 수 없음을 알겠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문자가 한미하다 하여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기허 낮고 천한 지경에 빠져 버리는 자는 어진 사람을 임용하고 능력 있는 이를 쓴다는 내용의 시조와 일치 않은 자이다.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나는 내용의 시조와 일치하며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면, 이 역시 천하의 어질고 귀한 인이다. 관작이나 문과가 어찌 또한 대단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옛적의 **선지(仙地)는 천인이었음에도** 행실을 닦아 세상에 이름을 떨쳐 진신(眞神)과 **차차(差差)가** 그를 존경하고 표도함이 오래도록 줄어들지 않았다. **일부(一部)는 기리(假吏)**

있으나 몸을 담아 충요에 뛰어나 현주(仙洲) 사람들은 **관(官)에도 그름** 본하는 **제사(祭)를 기(奇)한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이른바 이질(異質) 고귀한 인물인데, 이들이 어찌 관직을 버려서 자신을 존중했는가. **이 책 속에 기록된 내용이 이 같은 뜻을 잘 드러내으니 취하고 버리는 것이 문명이 분명하다고 할 만하다.**

사(史) (인(仁)후(厚)은(은)인(仁)구(九)가) 이 책을 견행하려고 하면서, 나에게 시문을 써 줄 것을 청해 왔다. **흔하고 거칠 대가 어찌 죽어 이러한 말을 말기에 합당하리요하는, 다만 (才)의 부(富)가 명(名)을 다스리고 실(實)에 힘(力)을 써서 (才)로써 생각한다는 말을 버리고 허위를 뵈이다. 이에 사기와 황무진 두 인물의 사를 들어 그 뜻을 널리 펴려고 한 것이다.**

- 이명현, '원조귀감' -
4. 위 글에서 언급된 '원조귀감'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화적 기조를 지니고 있다. ○
 - ② 여러 가문이 함께 간행했다. X (이시거의 관)
 - ③ 연의 기법의 산행류 다수고 있다.
 - ④ 다양한 형식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 ⑤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의 행적을 발굴했다. (종래의 관행에 생략 + 추가적인 발굴은 여러)

선지(仙地)는 천인이었음에도 행실을 닦아 세상에 이름을 떨쳐 진신(眞神)과 차차(差差)가 그를 존경하고 표도함이 오래도록 줄어들지 않았다. 일부(一部)는 기리(假吏)

5. ③의 취로 상소문을 올린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직은 외직에 비하여 특권이 없으나 외직을 거쳐 오히려 더 주수지. (내직→외직→주수지→외직) → 내직 특권 X, 외직 특권 X, 주수지 특권 X
 - ② 비답받은 집인의 사립이라도 뛰어난 자는 등용하는 데 구애됨이 없게 하소서. ○
 - ③ 서열도 적자와 같은 뿌리이니 꼭뵈를 만들 게 제사상의 차별을 두지 말게 하소서. 서열(西)에 따른 X, 상(上)의 차(差) X
 - ④ 서복 지방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세를 많이 내고 있으나 줄여 주소서. 서(西)에서 말(馬)은 X, 상(上)의 선(善) X
 - ⑤ 천민도 상인과 같은 배성이나 상인과 같이 균역에 처서 신인의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6. '항리'에 대한 글쓴이의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리는 유교 가치관 수용했다. 정신(精神)은 수(守)고 신(新)과 세(世)가 (守)고 (新)다
 - ② 항리 중에는 조정에 등용된 자도 있다.
 - ③ 항리도 백성을 다스리는 계층의 하나이다.
 - ④ 항리의 지위는 지대에 따라 점차로 높아졌다. 서(西)의 문(文)과 (文)의 서(西)
 - ⑤ 항리 조직은 중앙 조직을 모방하여 만들어졌다.

심화 학습

➤ 본인이 부족한 부분 + 고난도 문제로 연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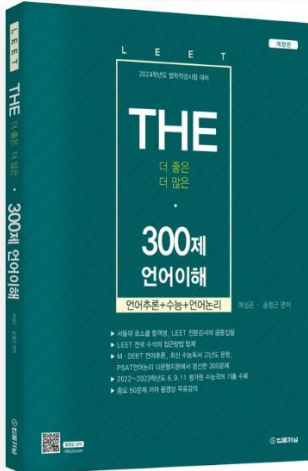
■ 언어이해: 배경지식 + 사설 모의고사 + 300제

2024 THE 300제 언어이해

법학적성시험 대비 | 언어주론+수능+언어논리

여성곤, 송형근 저자(글)
법률저널 · 2023년 03월 20일
주간베스트 취급/수령서 561위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개정판입니다. [구관보기](#)

10.0 (2개의 리뷰)
4.4 도움돼요 (100%의 구매자)



무료배송 | 소득공제

10% 24,300원 27,000원

적립/혜택 1,350P

배송안내 무료배송 ①
내일(4/27, 목) 도착예정 ②
서울시 종로구 종로 1 [변경](#)

알림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신청](#)

[매장 재고-위치](#)

- ▶ 새롭고 포괄적인 LEET 전문강사 권영달
- ▶ LEET 권영달 10년간의 노하우
- ▶ 새 LEET 언어론, 독해, 수능과 CMC 문제, PISA100까지 대용량다양한 문항 300제
- ▶ 2022~2023년도 4.9.11 방학+수능만 7종 4종
- ▶ 중요 100제 1차 문항의 추가

기출 분석

➤ 언어이해

- 30문제 5선지 → 150문제 푸는 셈
- 연도를 넘나드는 유기적인 학습
 - 소재: 이기론, 칸트, 헤겔, 공리주의 등
 - 선지: 정보 역전 등

5-6월

보충
10%

기출 분석
30%

10%
사설 모고

50%
학점 관리

학점 관리

- 제일 중요

기출 분석

- 5-6월이면 기출 회독을 마무리 할 시기
- 기출은 최소 4회독 하길 권장

사설 모의고사

- 전국 모의고사는 꼭 응시(고사장 체험)
- 그 외 강사 모의고사는 선택

보충 자료

- 취약 부분 독서
- 취약 파트 개별 보충

기출 반복

- 10회독 → 최소 3회독 → 대략 60일
- LEET 1주 전 휴가는 필수
→ 전날까지 야근? No... 시험에 본인 리듬 적응 필요
- 지문과 내용이 무의식적으로 외워질 때까지
→ 은근히 접치는 소재들 많음
- 뒤로 갈수록 틀린 문제만 체크해도 됨
→ 시간 오래 안걸림(시험 푸는 시간이 긴 게 함정...)

모의고사

- 3번 이상은 필수
 - 마킹하는 연습
 - 시험장 실제 분위기
 - 시험 운영 연습
 - 새로운 내용 학습

